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6% 전망

## 이주열 총재 “경제둔화 우려 있지만 지난해 수준”

한국은행이 24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2.8~2.9%)의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7월부터 수정을 거쳐 세차례 연속 내려간 것

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2.7% 수준의 하단과 같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한 이후 4월까지 유지했다가 7월 2.8%로, 10월 다시 2.7%까지 낮춰 잡은 바 있다. 국내 경제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설비·건설투자 조정과 고용 부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경기 가 급격히 꺾일 가능성은 낮은 것

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또한 둔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급속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장률 2.7%나 2.6%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대경제연

구, LG경제연구원은 2.6%로 전망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망치를 내놨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6%를 제시한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1.4%로 내려갔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이 반영된 결과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1%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반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도 1%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시스



농협경제지주가 23일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했다.

## ‘365일·24시간’ 편의점 줄어든다... 경조사 휴무·심야영업 단축 쉽게

공정위, 편의점·외식업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상권약화·자연재해 때 폐업 위약금 면제·감면

앞으로 종종 문닫힌 편의점이 전보다 눈에 띄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주는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를 챙기기가 쉬워지고 편의점의 상점처럼 여겨지던 ‘24시간 영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업종(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업)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전 휴무신청 사항을 점주들에게 공지하고 신청이 접수되

면 명절당일 4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순미 공정위 거명거래과장은 “현재 관행은 점주가 개별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별도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을 통해 점주가 휴무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심야영업시간대를 ‘오전 1~6시’로 보고, 이 시간 내에서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심야영업 단축요건에 해당했다. 하지만 대상 시간대가 ‘자정부터 오전 6시’로 1시간 늘어난다. 또 영업손실기간 요건

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했다던 편의점 분야 자율규약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와 업계는 ‘한 집 건너 한 집’ 상태인 편의점업체의 과밀화 해소방안으로 자율규약을 내놨다.

이 때 “출점은 어렵게, 폐점은 쉽게 하겠다”며 희망폐업시 영업위약금 면제 방안도 담겼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면제·감면기준이 명확히 적혔다.

‘점주의 책임없는 사유’엔 위약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는데, 이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히 약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위약금을 매기려면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맹본부의 오너가 친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 점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청구’ 내용도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포함됐다.

이 과정은 “앞으로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나 매출액 급감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손쉽게 우리 농산물 쇼핑 즐기세요”

농협,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 출시... 상품권 증정 이벤트 진행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는 23일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하고 고객서비스를 새롭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사랑상품권은 지난 1993년 ‘우투과이 라운드’ 타격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출시가 됐으며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으로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 사용 편의성을 높인 모바일 상품권 출시로 고객들이 손쉽게 농·축산물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은 휴대전화 MMS로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고객 마케팅이나 기업 복지용으로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 4종(5천원권, 1·5·10만원권)으로 발행되며 개인고객은 농협몰(www.nonghyupmail.com)에서 기업고객은 KT엠하우스의 기프트쇼비즈(biz.giftshow.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은 전국 농·축협 및 NH농협은행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하며,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농협몰은 오는 3월말까지 ‘농촌사랑 모바일상품권’ 5만원 이상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모바일 상품권(3만원, 200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명태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신용카드 순회교육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4일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영업점 신용카드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9년 신용카드 순회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순회교육 1부에서는 농협은행 개인카드 추진 방향과 추진 기법에 대한 교육이 2부에서는 법인카드 마케팅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협카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카드사업 성장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이념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韓 선박 수주량, 7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시장점유율 44.2%... 이전 최고기록도 경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계 발주량 2860만CGT 중 한국이 1263만CGT를 수주해 1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1위 자리를 2012년 중국에 빼앗긴 지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영국 조선·해운 분석 기관 클라크스리서치(Clarkson Research)의 2019년 1월 ‘World Shipyard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시장점유율 44.2%를 기록해

이전 최고기록(2011년·40.3%)을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2018년 수주량은 915만 CGT로 시장점유율 32.0%를 기록했다. 일본은 360만CGT·12.6%다. 액화천연가스(LNG)선 발주량 70척 중 66척(94%)을, 초대형 탱커(VLCC) 39척 중 34척(87%)을 한국이 수주했다.

산업부는 “고부가가치 선(船)종에서 압도적인 수주점유율을 차지했다”면서 “이는 해외 선주자들이

한국 조선사의 높은 기술력·안전성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황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세계 발주량이 3440만CGT로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클라크스리서치 전망(2018년 9월 기준)에 기반해서다.

산업부는 “한국 조선사들이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이 고부가가치 선박의 압도적인 수주를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 금융행정지도, 원칙적으로 ‘1회 연장 가능’ 명문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수단인 행정지도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행정지

도는 연장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했다.

또 금융위 행정지도와 관련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지도를 심의·의결토록 하고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실태평가시 주요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해 해당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